

“아빠 기억하며 무대에 오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가 계엄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기억해주세요.”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제작된 한국창작무용 ‘십일, 맨드라미꽃처럼 붉은’ (30일까지 유튜브 ‘518 TV’ 상영)은 산자와 죽은자가 만나 화해하고 해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곡하는 그녀들’, ‘남겨진 자들의 두려움과 저항’, ‘그날이 오면 다시 찾아오는 아픔’ 등 총 5장으로 구성돼 있는 작품은 한국 무용계를 대표하는 김매자씨가 연출을 맡고 서울 무용단 창무회와 ALTIMEETS 단원들이 출연해 역동적인 공연을 선보였다.

광주시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 오월평화페스티벌 일환으로 제작돼 1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된 이번 작품에는 5·18 유가족인 광주돌움무용단 김연우(40)씨가 ‘죽은자’ 역할로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요.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춤을 추는 게 행복했어요.”

김 씨의 아버지는 5·18 고문 후유증으로 나주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그후 긴 투병생활을 했다. 가끔 외박을 나와 집에 머무는 때면 김 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빠와 함께 간 소풍이었다.

“그날 하필 버스를 잘못탔어요. 그래서 결국 소풍에 늦었죠. 근데 가서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실망해 있는데 아빠가 우리끼리 소풍하자고 하는 거예요. 돌이켜 엄마가 싸준 김밥 먹고, 아빠는 노래 부르고, 저는 춤을 췄죠. 제 춤을 보시고는 열심히 박수 쳐주시면서 “우리 연우는 춤도 잘추고 노래도 잘하니까 춤 선생님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김 씨는 아빠를 생각하면 병원 창살 안에서 혼자 고동스러워 했던 모습이 떠오른다. 아빠는 항상 “사람을 미워

80년 시민군 고 김영철 씨 막내딸 김연우
돌움무용단원 활동...5월 춤으로 승화
서울시 제작 5·18 주제 무용 ‘십일...’ 출연
27·28일 도청 앞 ‘5·18 광대난장극’ 공연



최근 서울시와 광주시가 공동 제작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공연 ‘십일, 맨드라미꽃처럼 붉은’에 출연한 김연우 씨는 80년 5월 당시 시민군 기획실장으로 활동했던 고(故) 김영철의 막내딸이다.

김 씨는 80년 5월 당시 시민군 기획실장으로 활동했고 고(故) 김영철 열사의 막내딸이다. 그녀는 지금까지 5·18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에 참여하며 5·18을 춤으로 승화해 더 넓은 의미의 자유, 평화를 선보이는 예술활동을 지속해왔다.

김영철 열사는 박기순·박관현 열사 등과 함께 1978년 들불야학을 결성해 야학운동을 주도했으며 5·18 당시 정부와 언론의 흑색선전에 맞서 투사회보를 만들어 시민에게 배포하는 등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고 그의 이야기는 극단 토박이의 연극 ‘정실홍살’로 만들어졌다.

최근 만난 김 씨는 어렸을 적부터 노래하고 춤 추는 것을 좋아했다며 아빠를 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아빠는 5·18 이전부터 광천동 시민아파트에서 사회운동을 하면서 동네 학생, 사람들을 모아 노래하고 게임, 운동 등 레크리에이션을 했다고 해요. 특히 그림도 잘 그리셔서 아빠한테 풍경화 그리는 법도 배우고 그랬죠.”

김 씨는 5·18 이후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무용학원에 다녔다. 광주여고, 광주여대 무용과를 졸업한 그는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춤추는 것을 워낙 좋아해 항상 설레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5·18에 대해 뭐라고 단정지를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아빠를 기획실장 열사 김영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아빠 김영철, 인간다운 인간, 사람 그 자체일 뿐이에요. 춤도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하는 춤 속에 아빠와 관련된 기억이 있는 거고

하면 안된다. 용서해야된다. 너만큼은 미움 모르고 살아라”고 하셨다.

김 씨는 사춘기가 지날때쯤 아빠가 남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커가면서 아빠의 외로움, 처절함, 고독함 등을 이해하게 됐고, 아빠 생각에 밤이면 눈물이 그렇게 났다. 80년에 태어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5·18의 무섭고 두려운 감정들과 함께 자라온 김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춤’을 추면서 살고 싶다고 했다. ‘5·18 희생자의 가족’, ‘김영철의 딸’ 등의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만 그 안에 감하지 않고 이것을 원천삼아 예술인 김연우의 삶을 살 생각이다.

“저는 5·18과 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춤을 선택한 건 오로지 제 의지였죠. 5·18 김영철의 딸로서 무대에 서는건 아니에요. 아빠가 스스로 마지막까지 도전을 지키셨듯이 저도 제 의지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고 싶어요. 이게 아빠가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오는 27-28일 오후 4시 옛 전남도청과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5·18 광대 난장극 ‘오! 그리운 이어 아득히 흘러가자’에도 참여한다. 5·18 유적지를 따라 이동하면서 공연을 선보이며 신동호·지정남·소운정·김혜선·박상민·이다은·김선민·고재욱·문영태 등이 출연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봄이 바람으로 다가와...

서양화가 조근호 ‘춘풍’ 전, 7일까지 양림미술관



‘위로를 주는 봄바람.’ 서양화가 조근호 작가 기획 초대전이 오는 7일까지 광주 남구 양림미술관(광주시 남구 제중로 70)에서 열린다. 올 신작들을 만나는 이번 전시 제목은 ‘춘풍(春風)’이다.

그는 해보다 가혹했던 울해, 조 작가는 “갑자기 이상한 도시에 톡 내던져진 외계인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봄은 왔고, 봄은 이 잔인한 땅에서도 꽃을 피우고 어느새 우리 곁에 바람으로 다가와 있었다. 조 작가는 그 느낌들을 차분히 화폭에 풀어냈다.

‘춘풍’ 연작은 화사한 색감이 돋보이며 푸른 산과 파란하늘, 하얀 구름 등이 어우러진 풍경은 위안을 준다. 봄바람은 어디서든 불어온다. 대표 연작인 ‘도시의 창’ 시리즈에서도 즐글 선보였듯, 사각형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과 그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관람객의 마음을 살랑이게 한다. 그의 작품은 구체적인 풍경과 사물을 묘사하는 대신 대상을 단순화시킨 게 특징으로 유희 불감을 없애 바른 다양한 색의 배열로 화면에 리듬감을 만들어낸다. 특히 다채로운 화면 구성은 같은 연작이라도 각각의 작품마다 고유의 특성을 부여해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사선으로 쏟아지는 빗줄기와 푸른 하늘, 낮게 앉드린 건물과 집들이 어우러진 ‘비’ 연작과 함께 무채색을 주로 사용해 무게감을 주는 ‘잔인한 봄’ 시리즈, 강렬한 붉은색이 화면 전면을 가로지르는, 한층 강렬해진 ‘도시의 창’ 시리즈도 만날 수 있다.

조 작가는 지금까지 24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광주 신세계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선과 색, 한국전립미술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

그림을 읽어주는 음악 ‘전람회의 그림’

4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이 마련한 울해 세 번째 빛고을렉처콘서트가 오는 4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렉처콘서트에서 광신대 음악학과 승지나(사진) 교수는 “그림을 읽어주는 음악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을 주제로 그림 감상과 아울러 피아노 연주를 들려준다. ‘전람회의 그림’은 건축가, 디자이너, 화가였던 죽은 친구의 추모전시회를 감상하면서 그림에서 받은 영감을 차례로 묘사한 음악이다. 아울러 승 교수는 알기 쉬운 악보 분석 등 창작과정을 해석하고 그림의 내용을 읽는 2차적 창작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이다.



승 교수는 전남대학교 및 동대학원, 한양대학교 음악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내안에 나를 찾아서’ 등 대표 작곡작품이 있다.

공연 예약은 문화N티켓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공연 당일부터 모바일 발권이 가능하다. 입장료 전석 무료, 선착순 50명(인터넷 예매). 마스크 착용 필수.

한편 네 번째 강연은 오는 18일 최유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교수의 ‘노래의 힘과 오월의 기억’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바이올리니스트 윤성근 & 광주챔버앙상블

4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바이올리니스트 윤성근(사진)과 광주챔버앙상블이 오는 4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은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로스톡 국립음대 동문회가 후원하며 바흐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1번, 2번’과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들려준다.

윤 씨는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공부했으며 로스톡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후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악장 등으로 활동했다. 국립목포대, 세한대, 전남대학교 강사를 역임했고 현재 광주챔버오케스트라 리더로 활동 중이다.

이날 무대에는 광주시향 플루트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은지가 함께 오른다. 정 씨는 서울대 음악대학 기악과를 졸업한 뒤 영국 양림음악원에서 윌리엄 베넷 교수를 사사하며 석사학위를 받았다. 전석 2만원. (학생 50% 할인)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청년문화생태계조성사업’ 공모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청년들의 창작활동 지원하는 ‘2020 청년문화생태계조성사업-뫼단배 프로젝트’ 공모한다.

‘2020 청년문화생태계조성사업’은 청년들의 문화예술 창작경비를 지원하며, 사업내용에 따라 맞춤형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한다. 지원규모 총 4000만원(개인 및 팀 당

500만원-1000만원 내외)으로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로 광주시에 거주하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청년이면 지원 가능하다.

희망자는 오는 9월 오후 6시까지 이메일(gjcf0416@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행정심사와 인터뷰 심사로 진행되며, 인터뷰 심사는 개인팀 당 10분 내외 PT발표를 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벤들리관광호텔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면회장(180명), 소면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